

UX/UI DESIGNER

2025 PORTFOLIO

KIM SANG-KYUNG

Portfolio

UX/UI

GRAPHIC DESIGN

ABOUT



김상경 KIM SANG KYUNG

디자인 실무 7년
UI/UX 전환 및 프로젝트 경험
브랜딩 · 상세페이지 · 프로모션 제작



사용자의 행동을 이끄는 실용적인 디자인을 합니다

7년간 커머스 디자인을 경험하며 상세페이지와 프로모션 콘텐츠를 제작했고, 이를 통해 전환을 고려한 설계 역량을 쌓았습니다.
보기 좋은 화면을 넘어 실제로 쓰이는 제품을 만들고자 UI/UX로 전환했으며, 사용자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최근에는 조사·퍼소나·플로우 설계부터 UI 구현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을 경험하며 협업 속에서 더 나은 구조를 제안해왔습니다.

HISTORY

2024. 02 - 2024. 10	(주)모노트 상세페이지 제작, 배너, 이벤트, 썸네일 제작, 촬영 보조 등
2020. 10 - 2023. 09	비마이컴퍼니(주) 상품 페이지 /썸네일 제작 상품 등록 (네이버/카페24/에이블리/브랜디/지그재그) 배너 제작 및 변경 홈페이지 로고 제작 및 변경 사진 보정
2018. 04 - 2019. 01	(주)크리스제이 송장 출력/ 등록 상품 등록 (플레이오토) 위메프/티몬 등 엠디 소통 및 딜 페이지 진행 사진 촬영 상품 페이지 제작
2016. 12 - 2018. 01	이오스리테일 상품페이지 제작 / 썸네일 제작 / 배너 제작 및 변경
2013. 09 - 2015. 06	어반소울 (아르바이트) 포토샵 상세페이지 작업 및 오픈마켓 업데이트

Contents

01



ABOUT ME

자기소개 & 프로필
경력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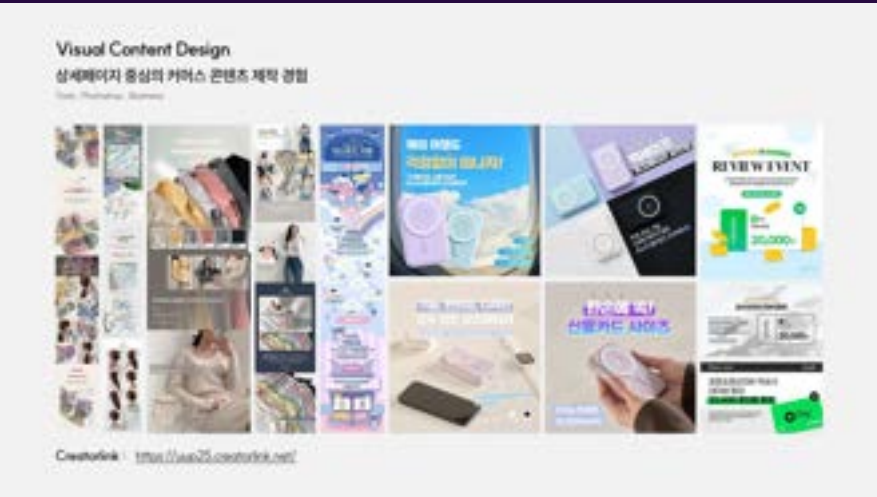
02



PROJECTS

주요 프로젝트 하이라이트
상세 진행 과정 및 결과

03



DESIGN WORKS

상세페이지 · 프로모션 작업 모음

Background

보이지 않는 가사노동,
이제는 '함께 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요.

집안일과 육아 떠맡는 여성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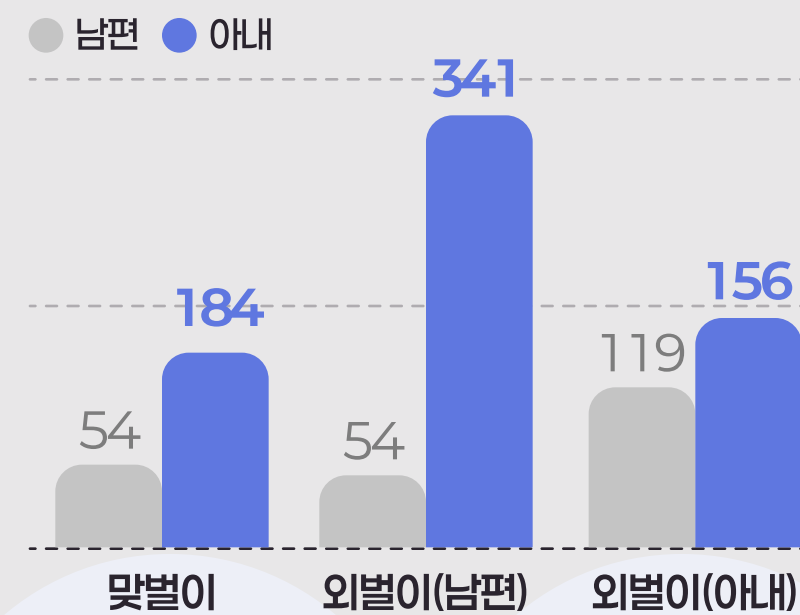
가사노동 성별격차, 언제 줄어들까?

가사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초기에 정해진 역할 분담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육아와 재택근무 상황에서도 여성의 무급노동은 지속되고, 이는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캐나다 한국일보, 유희라 기자 (press1@koreatimes.net)

맞벌이 상태별 가사노동시간

2023년 기준 가구 형태 비율



(출처: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각종 커뮤니티의 고민 글

동거 시작한 달 만에, **할 일 때문에 티격태격**...

공용 공간, **언제 누가 할지 애매**해요

같이 살지만 **집안일 기준**이 없으니 자꾸 쌓여요

우리 집 살림,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 발췌)

project go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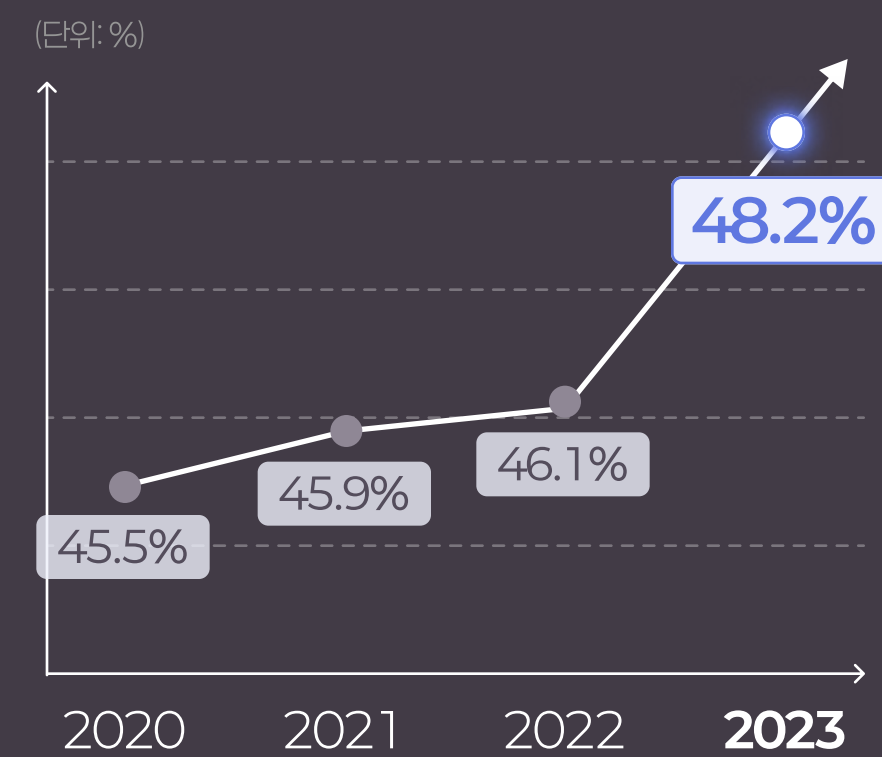
정량 데이터와 인터랙션 기반 UX로,
불균형한 분담을 체계적으로 개선합니다.



Resea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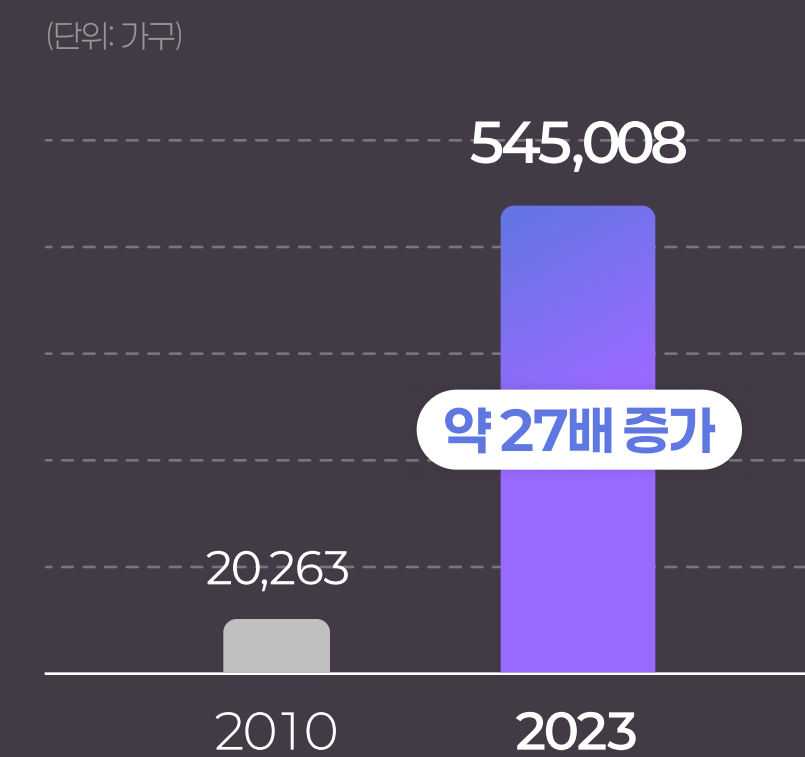
사용자 경험 중심으로 접근하면,
분담 문제도 달라질 수 있어요.

맞벌이 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 **48.2%**, 단일 사용자 중심의 UX는 한계

비친족 가구의 증가



비친족 가구 **27배 증가**, 다양한 동거 관계가 빠르게 확산

동거 구조가 다양해지며, 역할과 상호작용을 고려한 UX가 요구됨

Q. 공평한 가사 분담 방식은?

공평하게 분담 69%

아내가 책임 29%

남편이 책임 2%

(출처: 통계청 「가사분담 실태(2024년)」)

Q. 집안일을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요?

아내가 주로 하지만 남편도 분담 36%

공정하게 분담 24%

기타 15%

기타: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짐(9.3%) / 남편이 주로 하지만 아내도 분담(5.2%)
남편이 전적으로 책임짐(0.8%)」

(출처: 통계청 「가사분담 실태(2024년)」)

Q. 가사 분담이 스트레스였던 적 있나요?

여성 64%

남성 29%

(출처: Newworker X 두잇서비스(2022))

69% 공평 원함 vs 24% 실천, 간극을 메울 UX 구조 설계

분담 스트레스 64%, 역할 재설계를 위한 UX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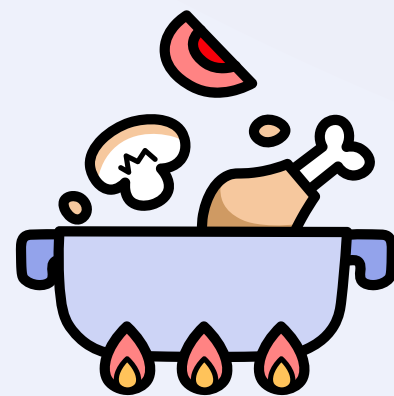
분담의 기준이 제각기 다른 상황, 경험의 차이를 반영한 접근이 요구됨

Solution

보이지 않던 노력과 역할이 드러나도록,
성과와 피드백 중심의 UX로 설계했어요.

역할 기준이 없어 실천이 어려움

Solution 01



기여도 기반 AI 역할 제안

AI가 살림 성향과 기여도를 분석해
할일을 추천해줘요.

대화 없이도 공평하게 분배

눈에보이는 결과가 있을때 동기부여가 됨

Solution 02



분담 기여 시각화

시각적 피드백으로 성취감을 주고,
자연스럽게 역할 균형도 맞춰줘요.

성과 시각화가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

시각적 피드백이 가장 강한 동기 요인

Solution 03



실시간 감정 피드백 메시지

동거인이 실시간 알림을 받고,
칭찬 피드백을 남겨줘요.

즉각적 칭찬이 참여 지속성을 높임

Character

정서적 연결을 더하는 캐릭터,
‘우리’와 함께해요.

우리 (Woory)

우리는 사용자 행동에 따라 감정을 읽고,
따뜻하게 중재하는 **UX 중재자**예요.



APP icon

우리의 마음을 전하는 캐릭터 **‘우리’**
앱 아이콘 속에서 먼저 인사드려요.

Emoticon

고마움, 기쁨, 응원 같은 마음을
우리의 **감정표현**으로 전해줄 수 있어요.



행복해요



웃겨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반했어요



고마워요

미래지

